

“전남대 로스쿨에만 장학금 지원 차별”

광주시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유무부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체결한 교육

시민단체 “형평성 어긋난 특혜성 지원” 광주시 “로스쿨 유치위해 지원했던 것”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로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지역 전문대학원(치·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타 지역에 있는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에 광주시가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에 역행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 조사 결과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는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는 20.5%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원도는 올해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며 “광주시도 특혜성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로스쿨 유치 당시 지자체 지원사항이 포함돼 있어 2009년부터 협약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협약기간 3년이 만료됐고 협약 갱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양송도 앞 해상서 병커-A 일부 유출돼

광양시 송도 앞 해상에 정박한 유조부선에서 19일 병커-A 일부가 바다로 유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께 송도 1km 앞 해상에 투묘 중인 유조부선 S호(134)에 구멍이 뚫려 병커-A가 바다로 흘러 들었다. 이 배는 사고 당시 병커 A 32, 병커 C 140을 신고 있었다.

S호 책임자 강 모 씨의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관련기관 선박, 민간방제선 등 총 12척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상에는 폭 22m 길이 160m의 기름띠가 형성됐으나 오일펜스 120m를 설치한 뒤 2시간 10여 분만인 오전 10시 40분께 방제작업을 마쳤다.

해경구조대는 S호에 승선해 선미 왼쪽 부분에 생긴 지름 약 3~5cm가량의 구멍 3개를 임시 방벽으로 봉쇄했다.

S호는 자사의 유조선용 이용해 실려 있던 병커 A 32을 이적했다.

해경 관계자는 “S호가 진수된 지 67년이나 된 오래된 선박으로 부식 등으로 인해 파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선박 관계자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호는 남아있는 병커 C 140을 이적시킨 후 수리할 예정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저탄소생활실천 홍보캠페인 광양시 기후환경네트워크(대표 소오섭)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13개 환경 참여단체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중앙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저탄소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채용비리 연루 광주은행 전 인사담당 2명 영장

광주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 전 인사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하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은행 임원급 직원 A 씨와 중간 관리급 간부 B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 특정 인원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쳐달라 고 일부 면접관에게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 180명 중 60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36명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자 명단에 올리고 합격자 중 일부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원자 20여 명의 합격과 탈락이 뒤바뀐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최종 합격으로까지 이어져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별·학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현재 광주은행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앞서 광주은행 본점과 자회사인 광은비즈니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수년 전 은행 채용 인사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시초는 금융감독원

이 광주은행을 포함한 시중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은행 모 부행장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채용절차가 끝난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부행장 등을 전보 조치했다. 이후 모 부행장은 퇴사했다.

금융원의 고발 내용을 수사하던 검찰은 수년 전 채용 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시기는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시점이다.

검찰은 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 추가 비리가 있는 지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은홍 기자

‘생활비 마련’ 새벽시간 상가털이 2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새벽시간대 빈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2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에 광주 북구의 한 상가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절도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북구 일대 상가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고 보안이 허술한 상가를 물색한 뒤 잠금장치를 무수고 잠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출소한 박씨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주측정 기록지 경찰관에 던진 5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음주측정 기록지를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오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7분께 광주 북구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친 혐의다.

오씨는 같은 시간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넌 음주측정 기록지를 구겨 경찰관 얼굴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오씨는 음주 측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기록지 교부를 거부한 오씨는 경찰관이 주머니에 넣어준 기록지를 꺼내 욕설하며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 빈 집만 골라 텨 40대 구속

담양경찰서는 19일 농촌 지역의 빈 집만 골라 텨 혐의(상습절도)로 진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에 담양군 문이 잡혀 있지 않은 A(78·여)씨의 빈 집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의 농촌을 돌며 총 10차례에 걸쳐 총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진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말다툼 중 회사 간부 폭행 업체 대표 체포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회사 간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머리를 폭행한 모 업체 대표 A(6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부산의 한 업체 창고에서 회사 상무 B(64)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하던 중 B씨의 머리를 바닥에 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 오토바이 뺑소니범 검거

음주운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망친 김모(2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에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치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 쓰러진 채 뒤이어 오던 다른 차량에 2차로 치였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명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 등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명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